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잠 1:7).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나의 존재와 인생의 목적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경외’란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 개념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라틴어로 ‘수페르비아’(superbia), ‘높이 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자리를 다투는 무섭고도 어리석은 죄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의 인생을 삽니다. 제멋대로 사는 인생은 패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잠 16:18).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신 8:14).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경험하고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결국엔 또다시 위험에 처하고 말았습니다(대하 32:24-26).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바라보게 만들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게 합니다(렐 50:31).

교만한 자는 삶의 온갖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직위, 지위, 재산, 학벌 등으로 자기 가치를 드러내려 합니다. 교만은 자만, 자기 과시, 자기 정당화, 도덕적·영적 우월 의식 등으로 본인과 주변 모두를 힘들게 만들며 불화합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이웃 모두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나를 알 수 있습니다(신 8:14-20).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며(딤후 1:17), 유일하신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십니다(딤후 6:15).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절정’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참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 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합니까?
- ②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나 자신/이웃 모두를 잃은 것은 아닙니까?